

## 충북도 '문화 선진도' 구현 시동

정우택 지사, 문화재단 설립 등 5대 전략 제시

장인수 , 2008-05-19 오후 9:14:23

충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문화선진도(道)' 구현에 나선다.

### 관련기사

- 일반 "도민들과의 스킨십 강화" (08/05/19)

정우택 충북지사는 1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문화선진도 구현을 위한 △앞서가는 충북 문화상 정립 △창조문화의 동력 확보 △신명나는 문예활동 진작 △품격있는 문화가치 창조 △나눔과 소통의 문화조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 지사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할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문예진흥기금 15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또 "창조문화의 동력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150억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2012년에는 이 기금을 2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지사는 이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며 충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지사는 이날 창조문화 동력 확보를 위해 충북문화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도립예술단 창단과 예술활동 지원액 확대를 통해 문예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 전수관 11곳 건립, 무형문화재와 기업간 자매결연 추진, 지역특화 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가치를 창조해나갈 것도 약속했다.

정 지사는 특히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현재 75개소에서 2011년까지 102개소로 늘리고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을 통한 메세나(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원조나 사회적·인도적 입장에서 공익사업에 지원하는 기업활동을 총칭)운동을 통해 나눔과 소통의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지사는 충북 문화상 정립을 위해 충북 문화 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

2008-05-19 오후 11:14:23 © < 충북일보(아이뉴스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바,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